

지역

한국농어촌공사 철원지사 장마철 앞두고 수리시설 안전점검

김대호기자 mantough@kwnews.co.kr

입력: 2025-06-19 23:00:00 지면: 2025-06-20(16면)



◇한국농어촌공사 철원지사는 19일 지역 내 저수지 등 주요 수리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.

【철원】 한국농어촌공사 철원지사(지사장:김용구)가 19일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 내 수리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저수지 수위관리를 실시했다. 이번 안전점검은 이상기후로 인한 극한호우 등 기상재해에 대비해 수리시설의 기능을 사전에 점검하고 인근 지역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추진됐다.

철원지사는 취입보와 배수장, 지역 저수지 등 주요 수리시설을 대상으로 수문과 배수펌프의 정상 작동 여부, 구조물 안전성, 침수 취약 지점 등을 사전 점검했다. 또 저수지 하류 지역 주민들의 재산 및 인명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. 김용구 지사장은 "예측이 쉽지 않은 집중호우에 대비해 저수지 사전점검 및 수위관리를 철저히 해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"며 "현장 중심의 예방활동을 통해 농촌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"고 말했다.

김대호기자 mantough@kwnews.co.kr

입력: 2025-06-19 23:00:00

지면: 2025-06-20(16면)